

『人文科學』 제120집

2020년 12월

근대계몽기 한글 학습서의 표기와 음운 현상 - 『초학언문』의 세 가지 이본을 중심으로*

김은솔**, 한영균***

I. 서론

『초학언문』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마가렛 벵겔(Margaret J. Bengel, Mrs. G. H. Jones¹⁾)이 저술한 한글 학습서다. 1895년 초간본 발간 이후 여러 차례 수정 간행되며 배재학당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초학언문』은 서문이 없이 전해지기 때문에 편찬 목적이나 학습 대상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신문』의 논설이나 『국어독본』 서문에서의 언급을 통해 『초학언문』이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글 학습 교재임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마가렛 벵겔은 1890년에 조선에 입국하였다. 이화학당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892년 인천에 영화여학당(현재의 영화초등학교)를 세운다. 1893년 조지 헤버 존스(Geo. Heber Jones, 조원시)와 결혼하였으며 1909년 귀국한다.

지금 국문으로 시로 지은 칙권을 대강 상고할진디 국문학교에서 그라칠 만흔 거시 첫지 초학언문이라 하는 칙이니 인천 사는 미국인 존스 부인이 저술흔 거시오 [...] 초학언문에는 국문 반절에 즈모 분간되는 법과 쉬운 문법으로 여간 장어의 문법을 분별하엿고 ...

『대국신문』(1903. 2. 3.) 論說 국문교육

그런고로 남녀 무론하고 어린 아희 초학을 위하여 책 일편을 저술하였스니 일흠은 초학언문이라 이 책은 언문 자획과 그 배호는 법과 아희 교육하는 법을 평성하엿고 ...

『국어독본』(1903) 서문

『초학언문』의 초간본은 학부 편찬 국어 교과서인 『國民小學讀本』(1895), 『小學讀本』(1895)과 같은 시기에 쓰였다. 갑오경장 이후 학제가 개편되며 근대적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소학독본』이나 『소학독본』은 한글 학습이 선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국한혼용문의 읽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초학언문』은 한글 자모부터 제시하는 민간 편찬의 한글 학습서다. 『초학언문』은 한글을 처음 학습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순한글로 쓰였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에 발간된 다른 국어 교과서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

『초학언문』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서신혜(2012)와 송미영(2017), 송미영(2018) 등이 있다. 서신혜(2012)는 『초학언문』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데 그쳤다. 송미영(2017)에서는 『초학언문』 초간본에 나타나는 표기와 음운 현상을, 송미영(2018)은 『초학언문』 초간본의 조사와 어미를 살피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가 집필한 국어 교재로서 가장 이른 것 중의 하나인 『초학언문』은 초간본 외에도 연대미상의 8판과 1909년본이 전해지는데 이 세 자료의 내용이나 국어사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학언문』(1895), 『초학언문』(연대미상), 『초학언문』(1909) 세 자료를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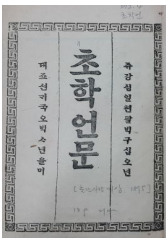
2)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학부 편찬의 『新訂尋常小學』(1896)은 앞부분에 한글 자모와 반절표를 제시하고 있어 한글 학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읽기 자료는 국한혼용문으로 쓰였다.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자료에 쓰인 표기법과 음운 현상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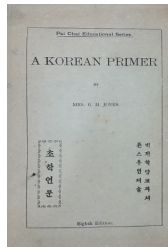
II. 『초학언문』의 서지 사항과 구성 및 내용

1. 서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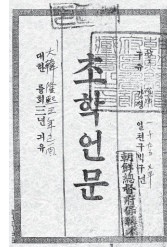
현재 전해지는 『초학언문』의 판본은 세 종류다.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회사연구소,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학자료실 등에 전해진다. 연대미상의 8판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국학자료실 소장본이다. 『초학언문』(1909)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에 ‘안춘근 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초학언문』(1895)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초학언문』 (연대미상)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초학언문』(1909년)
한국학도서관 소장

초간본은 1895년에 간행된 것으로 표지에 “유감원필립박구십오년 대조선기국오백스년을미”라고 출판 연도를 적었다. 표지를 제외하고 35면이며 20공과로 구성되어 있다. 판심 부분에 한글로 쪽수를 적었으며 한 면은 11행이고 계선이 존재한다. 한 행의 글자 수는 17자로 일정하다. 저자 표시나 간행처 등의 출판 정보가 없으며 서문과 목차도 없다.

연대미상의 『초학언문』은 표지에 “Pai Chai Educational Series.”, “A

KOREAN PRIMER”, “BY MRS. G. H. JONES”, “빅지학당교과서”, “존스부 인저술”, “초학언문”, “Eighth Editions.”이라고 저자, 용도, 판본 등을 적었다. “Eighth Editions.”이라고 적혀 있으나 초간본에서 여덟 번 수정된 판이라는 것인지 인쇄된 횟수를 나타내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표지 뒷면에 인쇄된 “PRESS OF METHODIST PUBLISHING HOUSE SEOUL”이라는 기록을 통해 감리교 출판사에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의 25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쪽 바깥 쪽 위에 쪽수를 한글로 표시하였다. 한 면은 11행인데 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 행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다.

『초학언문』(1909)는 표지에 “구주 강성 일천구백구년 대한 룡희삼년 기유”라고 적어 초간본과 마찬가지로 간행 연도만 확인할 수 있다. 연대미상본과 동일하게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의 25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쪽 바깥쪽 위에 쪽수를 한글로 표시하였다. 한 면은 11행인데 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한 행의 글자 수가 일정하지 않다.

2. 저자

『국어독본』(1903)의 저자인 존스 목사는 서문³⁾에서 『초학언문』을 초학자를 위한 교재라고 설명하면서 초학언문에 이어 학습할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국어독본』을 저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국어독본』(1903) 서문의 일부다.

그런고로 남녀 무론하고 어린 아희 초학을 위하여 책 일편을 저술하였스니 일흠은 초학언문이라 이 책은 언문 자획과 그 배호는 법과 아희 교육하는 법을 평성하였고 또 이번 저술한 책 일흠은 국문독본이니 이 책은 지식

3) 국문독본(1903)의 서문은 영문과 국문으로 쓰였다. 영문 서문 작성 날짜는 “May 1st, 1902.”이며 서문의 시작에 “Preface to First Edition.”라고 쓴 것으로 보아 초판 발행 당시 작성한 것이다. 국문 서문은 “주강생 一千九百三年”에 쓰였는데 국문독본(1903)의 표지에 “SECOND EDITION, 1903”라고 인쇄된 것으로 보아 재판 발행 당시 쓴 것이다.

의 유익한 뜻과 학문에 진보되는 말과 고금에 유명한 사람의 사귀를 대강 기록하였스니 [...] 미국선교사 조원시

“어린 아희 초학을 위하여 책 일편을 저술하였으니 일흠은 초학언문이라”와 “또 이번 저술한 책 일흠은 국문독본이니”라는 부분을 보면 『국어독본』과 『초학언문』의 저자가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대미상의 8판은 표지에 “BY MRS. G. H. JONES”와 “존스 부인 저술”이라고 적어 『초학언문』의 저자 정보를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 발행의 『教科用圖書一覽』(1913)에서도 『초학언문』의 저자를 “ミスジヨンス(misujiyonsu)”라고 적었다. 또한, 서신혜(2012:89-90)와 송미영(2017:24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와 『데국신문』의 논설을 통해 『초학언문』의 저자가 존스 목사의 아내인 마가렛 벙겔(Margaret J. Bengel)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도 목사의 부인은 칠년전부터 대한국에 나아와 교회를 힘써 전할시 초학언문이라 하는 책을 몬드려 본국 남녀에게 전도하고 ...
『조선그리스도인회보』(1896-7. 12. 8.)

지금 국문으로 식로 지은 칙권을 대강 상고홀진디 국문학교에서 그라칠 만흔 거시 첫지 초학언문이라 하는 칙이니 인천 사는 미국인 존스 부인이 저술흔거시오 국문독본이라 하는 칙은 존스씨가 지은 거시오 ...
『데국신문』(1903. 2. 3.)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와 『데국신문』 논설에서는 『초학언문』의 저자를 각각 “도 목사의 부인”, “인천 사는 미국인 존스 부인”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도 목사’는 조원시 목사, 즉 존스를 가리킨다.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의 기사는 『국문독본』(1903)의 서문이 나오기 이전의 기록이며 『데국신문』의 논설에서 『초학언문』과 『국문독본』의 저자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초학언문』 초간본의 저자는 존스 부인인 마가렛 벙겔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발행 연도

『초학언문』(연대미상)은 속표지를 통해 감리교 출판사에서 인쇄한 여덟 번째 판임을 알 수 있지만 발행 연도에 대한 정보는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대를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초학언문』(연대미상)의 내용을 근거로 통해 발행 연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초학언문』(연대미상)의 십오 공과 ‘대한디지’는 당시의 행정 구역을 소개하는 글로 전국의 13개 도와 각 도의 감영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갑오개혁과 함께 지방행정구역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1895년 제 2차 갑오개혁 때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였다가 1896년 8월 4일에 23개 부를 13도로 개정하였다. “갑오년 전에는 조선에 팔도와 삼십륙십 고을이 있더니 개화한 후로 십삼도와 삼십 스십 군으로 정하고 국호를 대한이라 하니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당시에 개편된 지방 행정 구역을 반영한 것이다. 이 공과에서 『초학언문』(연대미상)의 발행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전에 순스 수도는 지금 관찰스이니 일도를 맞아 다스리고 각 군에 군슈가 잇서 다스리고 외국 물화 통상하는 포구를 항구라 하니 대한에 여섯 곳에 개항하고 항구 관원은 감리스와 경무관이 잇느니라

개항장에 감리서(監理署)와 경무관(監理署)를 둔 것은 1896년 칙령 제 50호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감리서는 1883년 처음 설치되었으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가 ‘각 개항장 감리 부설 관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설치되었다. 이 규칙은 항구에 경무관을 둔다는 조항(제 8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감리서는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폐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학언문』 연대미상본은 최소

한 1905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의 감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평안북도의 감영을 ‘명주(定州)’로 기술하고 있는데 평안북도 감영이 정주였던 기간은 13도 개편 이후 일 년이 안된다. (1)은 그와 관련된 『초학언문』의 기술 내용이고 (2)는 평안북도의 관찰부 위치 변경을 허가한다는 1897년 『고종실록』의 기록이다.

- (1) 평안남도는 이십삼 군이니 그 감영은 평양이요 평안북도는 이십일 군이니 그 감영은 명주요

『초학언문』 (연대미상)

- (2) 七日。勅令第十四號，莞島郡所屬飛禽、都草兩島移屬于智島郡管轄件。第十五號，**平安北道觀察府位置以寧邊改正件。** 竝裁可頒布。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3월 7일 양력 1번째 기사

항구 관청의 명칭과 평안북도 감영의 위치로 보았을 때 『초학언문』(연대미상)은 1896년~1897년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초학언문』(연대미상)이 발행 당시의 행정 구역 개편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학언문』(연대미상)은 배재학당에서 교과서로 쓰였고, 배재학당은 고종에게서 학교 이름을 하사받은, 즉,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 기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배재학당은 1894년 육영공원 폐교 이후 정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영어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탁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배재학당에서 쓰인 교과서는 당시의 상황에 행정 구역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초학언문』(1909)에서는 평안북도의 감영을 “녕변”으로, 항구 관원은 “부윤”과 “경부”로 수정하여 인쇄한다. 따라서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연대미상의 『초학언문』은 평안북도의 행정 구역이 정주(定州)였던 기간 사이에 수정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⁴⁾

4) 이와 관련하여 초판(1895)과 제 8판(1896-7)이 간행된 간격이 짧다는 데에 의문이 제기될 수

4. 『초학언문』의 구성과 내용의 변화

『초학언문』(1895)는 20공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초학언문』(1896-7)⁵⁾과 『초학언문』(1909)는 25공과로 『초학언문』(1895)에서 다섯 과가 늘어났다. 『초학언문』(1896-7)과 『초학언문』(1909)는 표기가 다르거나 약간의 내용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과의 구성은 동일하다⁶⁾. 『초학언문』(1896-7, 1909)는 과가 늘어나면서 읽기 자료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과마다 제목을 붙였다. 각 공과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초학언문』의 공과 및 내용

번호	초학언문(1895)		초학언문(1896-7, 1909)		
	공과	내용	공과	제목	내용
1	데일공과	자모	데일공과	반절즈획	자모
2	데이공과	자음+모음	데이공과	반절성음	자음+모음
3			데삼공과	성즈합음	자음+모음+자음
4	데삼공과	일음절 단어	데사공과	일음성언	일음절 단어
5	데사공과	이음절 단어	데오공과	이음성언	이음절 단어
6			데륙공과	삼음성언	삼음절 단어
7	데오공과	간단한 문장	데칠공과	연음성언	간단한 문장
8	데륙공과	세상의 오복	데팔공과	세상오복	세상의 오복
9	데칠공과	공부의 필요성	데구공과	학습론	공부의 필요성과 공부법
10	데팔공과	공부 잘 하는 법			
11	데구공과	위생과 건강	데십공과	보신강녕	위생과 건강
12	데십공과	천륜과 인륜	데십일공과	경신익인	천륜과 인륜
13	데십일공과	지주와 여러 인종	데십이공과	턴문디구	지주와 여러 인종

있다. 불과 2년 사이에 8번이나 다시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이후의 자료로는 1909년판만이 전해진다는 점도 『초학언문』의 사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얻기 어려우나 1902년 배재학당과 정부와의 계약 종료 후 학생 수가 감소한 데에 따라 교과서의 수요가 감소했으리라는 점과 1906년 이후 『초등소학』, 『보통학교학도용국어독본』 등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교재가 다수 출현한 데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 5) 연세대학교 소장본인 연대미상 초학언문의 추정 발행연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96년~1897년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초학언문』(1896-7)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6)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앞의 3절에서 언급한 평안북도 감영의 위치와 향구를 관장하는 관원명이다.

14	데십이공과	하늘과 땅과 해와 별	데십삼공과	-	하늘과 땅과 해와 별
15	데십삼공과	전기선과 전보	데십사공과	공장편	전기선과 전보
16	데십사공과	조선의 지리	데십오공과	대한디지	대한제국 행정구역
17	데십오공과	복을 구하는 법	데십륙공과	피화구복	복을 구하는 법
18	데십륙공과	창조주 하나님	데십칠공과	만물노 증거함	창조주 하나님
19	데십칠공과	예수란 누구인가	데십팔공과	성즈구세	예수란 누구인가
20			데십구공과	시를 보는 거시라	시간을 보는 법
21			데이십공과	동모를 사귀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22			데이십일공과	소금이라	소금을 얻는 방법
23	데십팔공과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1-32)	데이십이공과	패즈회기	돌아온 탕자
24			데이십삼공과	패즈회기(연속)	(누가복음 15:1-32)
25			데이십사공과	구주의 변화함	변화산 예수님 (마가복음 9:1-10)
26	데십구공과	예수의 부활 (누가복음 24:1-35)			
27	데이십공과	예수의 부활 (누가복음 24:36-53)	데이십오공과	구주부활	예수의 부활 (누가복음 24:13-32)

『초학언문』은 한글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와 읽기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과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재 초반에 한글을 깨치기 위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이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된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 『초학언문』(1895)은 한글 학습의 기초를 다섯 과에 걸쳐 제시하였고 『초학언문』(1896-7, 1909)은 일곱 과에 걸쳐 가르친다. 추가된 내용은 자음, 모음, 자음의 결합을 보이는 ‘성조함음’과 세음절 단어를 제시하는 ‘삼음성언’이다.

『초학언문』(1895)에서 한글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에는 자음, 모음, 음절 자, 단어 등을 단순히 나열하기만 했으나 『초학언문』(1896-7, 1909)에서는 일공과부터 칠공과까지 제목 다음에 작은 글씨로 주석을 달아 학습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표 2 > 『초학언문』의 제 일 공과

『초학언문』(1895)	『초학언문』(1896-7)
데일공과 기니디르로버사 오즈 스키투표홍 탁탁타타코코트타 .	데일공과 반절주회 주 이 반절을 외울 거시 아니오 주회만 볼 거시니 이십오 주 중에 데일관 십일 주는 글주 테를 삼는 거시오 데이관 육주는 글주 변만 삼고 데삼관 팔주 는 변과 맞침으로 병하여 쓰느니라 데일관 탁탁타타코코트타 . 데이관 스키투표홍 데삼관 기니디르로버사 오

일 공과부터 칠 공과까지의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3가)는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이고 (3나)는 원문을 현대어로 바꾼 것이다.

(3) 가. 데일공과 반절주회

주 이 반절을 외울거시 아니오 주회만 볼거시니이십오주 중에 데일관십일 주는 글주 테를 삼는거시오 데이관 육주는 글주 변만 삼고 데삼관 팔주는 변과 맞침으로 병하여 쓰느니라

데이공과 반절성음

주 이십오 주회 중에서 흑이삼스 획을 합하여 글주가 되고 음을 니른 거시니 이 음과 성주 되는거슨 선성이 분명히 마르쳐야 흘지니라

데삼공과 성주합음

주 이 공부하여 주회가 몇치 합하여 글주 되는 법과 성음 성언 되는거슬 북히 알지니라

데스공과 일음성언

주 이아리 글주는 데삼공과 본을 좇차 그획을 합하여 성주 되는 것과 음을 갖초아 일음되는 말을 공부 흘거시라

데오공과 이음성언

주 이 아리 글주는 데삼공과 본을 좇차 그 획을 더 합하여 성주 되고<5>음을 갖초아 이음 말이 되는거슬 공부 흘지니라

데륙공과 삼음성언

주 이 우회 공부에 성주 성음을 분간하여 말 되기에 니르럿스니 일 음성으로 브터 이 삼스 오 음으로 차차 이어가는거시니 말을

흘새에 시종을 분명히 하여야 잘 하는 말이니라
 제칠공과 연음성언
 주 이 공부는 음을 이어 길게하는 말이니 언어 이던지 성경책을
 보던지 성지고져와 음지장단을 절조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제일공과 반절자획
 주 이 반절음을 외울 것이 아니오 자획만 볼 것이니 이십오 자
 중에 제일관 십일 자는 글자체를 삼는 것이오 제이관 육 자는 글
 자 변만 삼고 제삼관 팔 자는 변과 받침으로 병(並)하여 쓰느니라
 나. 제이공과 반절성음
 주 이십오 자획 중에서 혹 이 삼 사 획을 합하여 글자가 되고 음
 을 이룬 것이니 이 음과 성자되는 것은 선생이 분명히 가르쳐야
 할지니라
 제삼공과 성자합음
 주 이 공부하여 자획이 몇이 합하여 글자 되는 법과 성음 성언되
 는 것을 밝히 알지니라
 제사스공과 일음성언
 주 이 아래 글자는 제삼 공과 본을 좇아 그 획을 합하여 성자되
 는 것과 음을 갖추어 일음되는 말을 공부할 것이라
 제오공과 이음성언
 주 이 아래 글자는 제삼 공과 본을 좇아 그 획을 더 합하여 성자
 되고 음을 갖추어 이음 말이 되는 것을 공부할지니라
 제육공과 삼음성언
 주 이 위에 공부에 성자 성음을 분간하여 말 되기에 이르렀으니
 일 음성으로부터 이 삼 사 오 음으로 차차 이어가는 것이니 말을
 할 때에 시종을 분명히 하여야 잘 하는 말이니라
 제칠공과 연음성언
 주 이 공부는 음을 이어 길게 하는 말이니 언어이든지 성경책을
 보던지 성지고져와 음지장단을 절조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초학언문』(1895)에 실린 읽기 자료는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
 지만 특정 과가 아예 삭제되는 경우는 없다. 칠 공과와 팔 공과는 『초학언문』
 (1896-7, 1909)에서 한 공과로 합쳐졌다. 내용이 수정된 공과는 십사, 십구, 이
 십 공과다.

『초학언문』(1895)의 십사 공과는 조선의 행정 구역과 네 개의 큰 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초학언문』(1896-7, 1909)는 십오 공과 ‘대한디지’에서 행정 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읽기 자료 중 지리 및 행정 구역에 관한 부분은 당시의 행정 구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되었다.

(4) 地方制度: 第一條 全國을 分^호야 二十三府의 行政區劃으로 分^호야 左開^호는 各府를 置^호함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5월26일 첫 번째 기사

(5) 勅令第三十六號, 地方制度官制改正件, 裁可頒布. 全國二十三府, 以十三道改正, 而首府位置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8월4일 네 번째 기사

조선은 오랜 기간 전국을 8도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했으나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하고(4) 1년 뒤인 1896년에 다시 13도로 개정한다(5). 이에 따라 『초학언문』(1895)에서는 8도 체제의 행정 구역을(6), 『초학언문』(1896-7, 1909)에서는 13도 체제를 따른 행정 구역을 설명하고 있다(7).

(6) 道선에 峽도와 삼백륙십 고을이 잇스니 峽도는 경기도와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와 황해도니라 道선에 네 큰 강이 잇스니 락동강과 한강과 대동강과 압록강이니라
『초학언문』(1895)

(7) 德십오공과 대한디지
갑오년 전에는 朝鮮에 峽도와 삼백륙십 고을이 잇더니 개화^호 후로 三삼도와 삼백스십 군으로 正^호고 國호를 大韓이라 訶니라
『초학언문』(1896-7, 1909)

십구, 이십 공과는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실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누가복음 24장의 일부로 내용이 축소된다.

- (8) 가. 그날에 두 데즈 | 흐 마을에 가니 일흠은 입맛시(以馬忒)니 예루
 살림에서 이십오리라
 서로 맛난 바 모든 일을 말혀여
 슈작홀 쎄에 예수 | 갓가히 와서 흠찌 힝혀되
 나. 그날 그 중에 둘이 엠마오라 흐는 촌에 가니 여기가 예루살넴에
 서 이십오리즘 되는지라
 서로이 본 거술 의론햐야
 못춤 힐난홀 쎄에 예수 | 갓가히 니르러 흐가지로 힝혀시니

(8)은 누가복음 24장 13절~15절)로 (8가)는 『초학언문』(1895)의 십구 공과, (8나)는 『초학언문』(1896-7) 이십오 공과 ‘구쥬부활’의 일부다. (8가)와 (8나)는 번역어의 선택이나 문장 구성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외국 지명이나 인명의 표기도 차이가 있다. 『초학언문』(1895) 십구, 이십 공과의 외국 지명과 인명 표기와 『초학언문』(1896-7, 1909)의 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표 3 > 외국 지명과 인명 표기 비교

개역개정(1998)	『초학언문』(1895)	『초학언문』(1896-7, 1909)
엠마오	입맛시	엠마오
예루살렘	예루살림	예루살넴
글로바	키료피	글노과
나사렛	나살잇	나사렛
그리스도	키리쓰도	그리스도
모세	모쇼	모세

이로 보아 ‘예수 부활’에 대한 읽기 자료는 『초학언문』을 개정하면서 내용을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7) 현대어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정, 1998)

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초학언문』(1896-7)과 『초학언문』(1909)의 십구 공과, 이십 공과, 이십일 공과, 이십사 공과는 『초학언문』(1895)에는 없는 공과로 개정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추가된 이야기는 설명문 세 편과 성경 속 이야기 한 편인데, 설명문은 모두 『신정심상소학』의 텍스트를 순한글로 바꾼 것이다. ‘데십구공과 시를 보는 거시라’는 『신정심상소학』 1권의 6과 ‘時’를 순한글체로 바꾼 것이다. 데이십공과와 데이십일공과는 각각 『신정심상소학』의 2권 10과 ‘동모를 갈히는 法이라’와 2권 11과 ‘소곡이라’의 내용을 축소하고 순한글로 바꾸어 실었다.

III. 『초학언문』의 표기

이 장에서는 『초학언문』의 표기 특성을 살펴보면서 수정 간행되는 과정에서의 표기 변화를 살피고자 한다. 표기 특성으로는 ‘·’의 표기, 어두 ‘ㄴ’과 ‘ㄹ’ 표기, 경음의 표기, 어중 ‘-ㄹ-’의 표기, 종성의 표기, ㅎ중성 체언의 표기, 치찰음 아래에서 이중 모음의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⁸⁾

1. ·의 표기

표기의 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 변화다. (9), (10), (11)은 각각 ‘ㅏ’, ‘ㅑ’, ‘ㅓ’가 ‘·’로 수정된 예로 단어 내부의 변화가 대부분이다.

- (9) 가. 남을<23>→눔을<23>, 남어지<13a,26>→눔어지<26>, 아히<3b>→
으히<6>, 달이<6b>→들이<11>, 마련하신<10b>→마련ㅎ신<20>
나. 하나<6>→ㅎ나<6>, 하로날이라<22>→ㅎ로날이라<22>,
남을<23>→눔을<23>

8) 출전표시는 ‘용례<페이지>’로 한다. 해당 용례의 출전 표기 순서는 ‘용례<1895, 1897, 1909>’ 순으로 페이지만을 나열한다.

- (10) 곶오딧<12b>→곶으딧<26>, 논화<12b,26>→논하<26>
 (11) 다른<3b>→다룬<7>, 푸른<7b>→푸룬<13>

(9)는 ‘ㅏ’에서 ‘ㅑ’로 변화를 보이는 예다. (9가)는 『초학언문』(1895)에서 『초학언문』(1896-7)으로 수정될 때, (9나) 『초학언문』(1896-7)에서 『초학언문』(1909)로 수정될 때 나타나는 용례다. ‘하나’는 주로 ‘헨나’로 표기되는데 ‘하나’로 표기된 예가 『초학언문』(1896-7)에 한 번 있다. ‘가로되’는 『초학언문』에서 주로 ‘곶으딧’으로 표기하는데 『초학언문』(1895)에서 ‘곶오딧’의 예를 보이는 경우가 두 번 있다. 이는 『초학언문』(1896-7)에서 ‘곶으딧’으로 수정된다. ‘나누다’의 경우 ‘논호다’에서 ‘ㅑ’가 음가를 잃으면서 18세기 이후에는 ‘난호다’의 형태로 쓰인다. 『초학언문』에서는 아직 ‘논호’의 표기를 보이는 데 (10)에서 볼 수 있듯이 활용형 ‘논호-어’에서만 특이하게 ‘논호-어’로 쓰이다가 『초학언문』(1909)에서 ‘논호-어’에서 ‘ㄱ’가 탈락한 ‘논하’의 형태로 표기된다. (11)은 ‘ㄹ’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이 ‘ㄹ’의 표기에서 변화를 겪는 예인데 모든 ‘ㄹ’ 불규칙 활용 용언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2)는 ‘ㅑ’가 ‘ㅏ’로 수정된 예다. 단어 내부의 변화가 대부분이지만 (12다)와 같이 문법 형태소 중에서도 ‘ㅑ’로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ㅑ’에서 ‘ㅏ’의 수정은 ‘ㅏ’에서 ‘ㅑ’의 수정의 예보다 많이 확인된다.

- (12) 가. 드라난다<3a>→다라난다<6>, 못헨리오<11a>→못하리오<20>, 색른<8b,15>→싸른<15>, 츠젓다<13b,28>→차젓다<28>, 파너여<25>→파내여<25>, 헨<12b>→헨<25>, 헨더라<13b>→하더라<27>
 나. 마지논<6a,11>→마지논<11>, 술<7a,12>→살<12>, 남어지<13a,26>→눔어지<26>, 아릭<4>→아래<4>, 오릭<3b,6>→오래<6>, 유태국에서<11b>→유태국에서<21>, 조조<5a>→자조<9>
 다. 갈릭셔<25>→갈라셔<25>, 년치티로<6a,11>→년치대로<11>, 청헨믹<12b,25>→청헨매<25>, 헨둔<31>→헨단<31>

(13)은 ‘·’가 ‘一’로 수정된 예로 문법 형태소의 변화가 대부분이다.

- (13) 가. 낫흔듯<8a,14>→낫흔듯<14>, 노릇하여<13a>→노릇하여<26>, 니르러<30>→니르러<30>, 드르러<29>→드르러<29>
 문든<10b,19>→문든<19>, 문드신<10b,19>→문드신<19>, 문드
 는지<24>→문드는지<24>, 문드늘<25>→문드늘<25> cf. 문드
 라<8b,15,15>
- 나. 잇스니<13a,26>→잇스니<26>, 잇스면<10a,18>→잇스면<18>, 업
 스니<10a,18>→업스니<18>, 엇엇스나<27>→엇엇스나<27>, 엇엇
 스나<13a,27>→엇엇스나<27>, 헛엇스나<24>→헛엇스나<24>
- 다. 가락지를<13a,27>→가락지를<27>, 공로를<12a,22>→공로를
 <22>, 나를<29>→나를<29>, 더를<29>→더를<29>, 도야지를
 <12b,26>→도야지를<26>, 동모를<23>→동모를<23>, 빌디를
 <9b,18>→빌디를<18>, 셋술<29>→셋술<29>, 쇼를<13a, 27>→
 소를<27>, 시를→시를<22>, 양화를<12a,22>→양화를<22>, 업쥬
 를<9b,18>→업쥬를<18>, 엘니아를<29>→엘니아를<29>, 옷술
 <13a>→옷을<27>, 우리를<13b,28>→우리를<28>, 은혜를
 <12a,22>→은혜를<22>, 이십스시를<22>→이십스시를<22>, 이
 야기를<24>→니야기를<24>, 일도를<17>→일도를<17>, 죄를
 <11a,20>→죄를<20>, 쥬를<29>→쥬를<29>, 즈기를<32>→즈기
 를<32>, 쳐디를<12b,26>→쳐디를<26>, 천리를<8b, 15>→천리를
 <15>, 포구를<17>→포구를<17>

(13가)의 ‘만들다’는 『초학언문』(1909)에서 ‘문드-’의 표기 변화를 겪지만 ‘문드라’처럼 ‘문드-’의 표기가 이어지는 예도 남아있다. (13나)는 ‘-으-’의 표기 변화로 선행 음절의 종성이 ‘스’인 경우에만 시이 중첩되며 ‘-스-’의 표기를 보이다가 『초학언문』(1909)에서는 ‘·’의 표기가 ‘一’로 바뀐다. ‘밧으면(밧으면)<12a, 21, 21>’, ‘엇으면(얻으면)<11a, 20, 20>’과 같이 선행 음절의 종성이 ‘스’이어도 ‘ㄷ’의 중화된 표기일 경우 분절하면서 ‘-으-’로 표기하고 있다. (13다)는 목적격 조사 ‘를’의 표기다. 『초학언문』(1909)에서 ‘를’이 ‘를’로 표기의 변화를 겪는 예가 많지만 ‘를’의 표기를 유지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이 외에 (14)와 같이 ‘·’가 ‘ㅣ’로 표기의 변화를 보이거나 ‘·’가 ‘ㅏ’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 (14) 가. 부를<8a>→부릴<14>
 나. 히벗히<25>→히빗헤<25>
- (15) 첫재<6a>→첫직<10>→첫재<10>, 막음대로<8a>→막음디로<14>→
 막음대로<14>, 헉나만<3b>→하늬만<6>→헉나만<6>

이 시기 ‘·’의 음기는 이미 사라졌으나 표기의 보수성으로 문헌상에만 남아 있었기에 표기에 혼란을 보인다. ‘·’의 표기는 『초학언문』(1895)보다 『초학언문』(1909)에서 사라진 예가 많기는 하나 (15)에서 보이는 것처럼 판본마다 달라지기도 한다. 『초학언문』의 ‘·’ 표기 변화에서는 어떠한 경향성을 도출하기 어렵다.

2. 어두 ‘ㄴ’ 과 ‘ㄹ’ 의 표기

현대국어에서는 단어 구조 제약에 따라 어두에 ‘ㄹ’ 또는 ‘ㅣ’, ‘y’ 앞의 ‘ㄴ’이 올 수 없다. 어두의 ‘ㄴ’과 ‘ㄹ’이 탈락하는 현상은 16세기부터 나타나 18세기를 거쳐 보편화되었으나(이근영 1999:72) 『초학언문』에서는 (16)의 예와 같이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가 다수 확인된다.

- (16) 가. 넷적에<12b,25,25>, 넓고<4a, 7, 7>
 나. 녀인(女人)<14a>, 년치(年齒)<6a,11,11>, 락동강(洛東江)<9a>, 량식(糧食)<13a,26,26>, 령혼(靈魂)<3b,6,6>, 류헉(留)<32,32>, 륝디(陸地)<12>, 륝십(六十)<6b,12,12>, 륝법<17a>, 리로온(利-)<11>, 립동(立冬)<10b,19,19>, 립추(立秋)<10b,19,19>, 립춘(立春)<10b,19,19>, 립하(立夏)<10b,19,19>
- (17) 가. 닐헉<13b, 28>→일헉<28>, 로여헉<11a>→노여헉<20>
 나. 연속<27>→련속<27>, 이어<6>→니어<6>, 이어가는<5>→니어

가늌<5>, 익혀<5b,9>→닉혀<9>

(17)은 간행본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예다. (17나)는 『초학언문』(1896-7)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를 보이다가 『초학언문』(1909)에서 다시 ‘ㄱ’ 또는 ‘ㄴ’을 적는 예로, 어두의 ‘ㄴ, ㄱ’ 표기의 혼란을 보여준다.

3. 경음의 표기

근대 계몽기에 어두 경음 표기로는 ㄱ계와 ㄴ계 합용병서가 쓰였다. 『초학언문』에서는 ㄴ계 합용 병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ㄱ계 합용병서인 ‘ㄱ, ㄴ, ㄷ, ㅅ, ㅈ’를 사용하여 어두 경음을 표기한다.

- (18) 가. ㄱ ㄱ ㄱ ㄱ<8b,15,15>, ㄱ ㄱ<8b,15>, ㄱ ㄱ ㄱ ㄱ<12a,21,21>, -ㄱ
(ㄱ)<5a,10,10>, ㄱ ㄱ<13a,27,27>
- 나. ㄱ ㄱ ㄱ<7b,13,13>, ㄱ<6b,12,12>, ㄱ<10a,19,19>, ㄱ<7b,13,13>,
ㄱ<18a>, ㄱ<16a,32,32>, ㄱ ㄱ ㄱ ㄱ<32,32>,
ㄱ<4b,12,12> ㄱ ㄱ<16b,24,24>, ㄱ ㄱ ㄱ<32,32>,
ㄱ<5b,10,10>, ㄱ ㄱ<28,28>, ㄱ<10a,18,18>, ㄱ<5a,9,9>
- 다. ㄱ ㄱ ㄱ<5a,9,9>, ㄱ<8b,15,15>, ㄱ ㄱ ㄱ<8b,15/15>,
ㄱ<17a>
- 라. ㄱ ㄱ<25,25>, ㄱ(用)<4b,8,8>, ㄱ(以)<14b>, ㄱ<4b,8,8>, ㄱ
ㄱ ㄱ ㄱ(記)<1,1>, ㄱ ㄱ(掃)<5a,9,9>, ㄱ<4,4>, ㄱ<6,6>
- 마. ㄱ ㄱ<7a,13,13>, ㄱ<24,24>

『초학언문』(1895)와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국민소학독본』, 『소학독본』에서 ‘以’의 번역어에 ㄴ계 합용병서를 사용한 것과 달리 초학언문은 초간본에서도 ‘以’의 번역어를 ㄱ계 합용병서로 표기한다.

어두에서 ㄱ계 합용병서로 경음을 표기한 것과 달리 어중의 경음 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19) 가. 삭군<13a,26,26>, 글시<4a,7,7>, 둘째/둘지<5b/10,10>, 말슴
 <11a,20,20>, 살진<13a,27,27>, 첫재/첫지<6a,10,10>
 나. 갓가오나<8a,14,14>, 갓가오매<16a,32,32>, 갓가히<30,30>, 깃부
 계<29,29>, 맛당이<15b>, 맛당치<32,32>, 엇더케<24,24>, 엇지
 <7b,14,14>, 잇다<3b,6,6>
 다. 흙씩<13b,28,28> cf. 쫓밭씩<27,27>
 라. 췌췌시<5a>→췌긔시<9>, 팻꺽질<26>→팻꺽질<26>

(19가)는 어중의 경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다. (19나)는 선행음절에 ㅅ을 표기하여 어중의 경음을 나타냈다. (19다)는 어중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예로 『초학언문』 전체 중 ‘함께’에서만 나타난다. ‘쫓밭씩’은 ‘뜻밖-에’에서 ‘뜻밖’의 종성의 ㅅ은 연철되고 ㅅ이 덧나는 표기를 보인다. (19라)의 ‘깨끗이’는 『초학언문』(1896-7)과 『초학언문』(1909)에서는 선행음절에 ㅅ을 표기하여 어중의 경음을 나타내었으나 초간본에서는 어중에 ㅅ을 쓰고 선행어절에도 ㅅ을 쓰는 중철 표기를 보였다. ‘팻꺽질’은 『초학언문』(1896-7)에서는 어중에 경음을 표기했지만 『초학언문』(1909)에서 ‘팻꺽질’로 수정된다.

4. 종성의 표기

근대계몽기의 종성 표기는 7종성법에 따라 중화된 음을 표기한다. 종성 표기에 쓰인 자음은 ‘ㄱ, ㄴ, ㄷ, ㅁ, ㅂ, ㅅ, ㅇ’ 7개다. 다만, 경우에 따라 겹받침이 그대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종성의 표기는 분철, 연철, 중철의 방식이 혼용된다. 『초학언문』에서는 주로 분철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표기에서 중철과 연철이 혼용된다.

- (20) 가. 목욕을<5a,8,8>, 복을<9b,18,18>, 먹어야 <5b,9,9>
 나. 공부식히느니라<4a,7,7>, 박휘(바퀴)<8b,15,15>
 (21) 가. 만민을<10b,19,19>, 물을<8b,15,15>, 몸을<5a,8,8>
 나. 근심흙이<30,30>, 낫타남을<16b>, 능흙이<15a>, 못흙이라<15b>.

사랑흙을<27,27>, 응협흙이라<17a>, 친흙이<23,23>, 허탄흙을
<14b> 효성흙이<6a,10,10>

다. 갖가오매<16a,32,32>, 굽어보매<14b>, 드리주매<17a>, 못흐매
<14a>, 청흐미<12b,25>

(22) 가. 돌아가고(轉)<7b,13,13>, 돌아드니고(轉)<6b,11,11>,
들어(擧)<17b>, 살아나고<13a,27,27>,

나. 니러나<14b>, 도라오면(歸)<13b,28,28>, 드러(聞)<13b,27,27>,
드러가니라(入)<32,32>, 든드라<8b,15,15>

다. 갈아납으며<5a>→가라납으며<9,9>, 돌아가며<8b>→도라가며
(週)<15>, 돌아간즉<8b>→도라간즉(週)<15,15>

(23) 남겨지<13a,26>, 임의<31,31>

‘ㄱ, ㅋ’이 종성이 쓰일 때는 ‘ㄱ’으로 표기하며 주된 표기 방식은 분철이
다. (20나)는 어종의 유기음화를 표기하는데 ‘ㄱ+ㅎ’으로 분철한 예이다. ‘ㄴ’,
‘ㄷ’, ‘ㄹ’이 체언말 종성으로 쓰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에는
분철 표기된다(21가). 용언의 명사형이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21나)처럼
분철 표기하거나 (21다)와 같이 연철 표기를 보이기도 한다. 용언 내부나 활용
에서 ‘ㄷ’은 연철 표기와(22나) 분철 표기가 혼용된다(22가). ‘기계가 움직이
다’의 뜻으로 쓰인 ‘돌아가다’는 초간본에서는 분철 표기 한 것이 수정 간행될
때에 연철 표기로 바뀐다. ‘(옷을) 갈아 입다’도 분철 표기했던 것이 연철 표기
로 바뀐다(22다). (23)은 단어 내부에서 과잉 분철된 표기다.

‘ㄴ, ㄷ’은 종성에서 ‘ㄴ’으로 표기한다. ‘ㄷ’ 종성에 모음이 이어지면 재음
소화 하여 ‘ㄴ+ㅎ’으로 표기한다(24나).

(24) 가. 법이<10a,18,18>, 집을<10b,19,19>

나. 김흐느니라/김허지느니라<6a/10,10>, 눅흔<28>, 압희셔/압헤셔
<28/30>, 압희셔<15a>

‘ㄷ, ㅅ, ㅈ, ㅊ, ㅌ, ㅎ’은 종성에서는 [ㄷ]으로 중화되지만 표기에서는

‘ㅅ’으로 나타난다. 이어지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모두 ‘ㅅ’으로 표기한다. 모음이 이어질 때에는 분철, 연철, 중철의 방식이 혼용되어 여러 가지 양상을 띤다.

- (25) 가. 밧계<11b,21,21>, 밧으면<12a,21,21>, 엇고<13a,26,26>, 엇어
 <12b>, 엇으니<11a,20,20>
 나. 밧지느(말이느)<6b,11,11>
- (26) 가. 쫓을<5b,10,10>, 쫓스<11a>→쫓은<20,20>
 나. 무엇으로<24>→무어스로<24>, 무엇시오<10a,18>→무어시오
 <18>
 다. 벗스로<6a>→벗으로<11,11>, 옷스<5a>→옷은<9,9>
 라. 맞사<24,24>
 마. 잇소<3a,6,6>, 잇셔/잇서<7b/13,13>, 잇시니<6b,12,12>,
 잇스니/잇스니<10a,18/18>
- (27) 가. 거슬<13a,26,26>, 거시<8b,15,15>, 거시니<10b,19,19>, 거시니라
 <4a,7,7>, 이거슬<4a,7,7>
 나. 것슬<10b>→거슬<20,20>, 것사<6b>→거시<11,11>, 것시니<6a>
 →거시니<10>, 것시라<4a>→거시라<8,8>, 것시오<13a>→거시오
 <28,28>, 이것스<13b>→이거스<28,28>, 이것시<5b>→이거시
 <9,9>

중성의 ‘ㄷ’이 용언의 활용형에서 연철되는 예는 없으며(25가) 어휘 내에 서 ‘ㄷ’으로 연철된다(18나). 『국민소학독본』(1895)에서 어간 말음이 ‘ㄷ’인 ‘얻’과 ‘받’에 모음이 이어질 때 ‘ㄷ’으로 연철되는 것과는 다르게 『초학언문』에서는 ‘ㅅ’으로 분철되는 예만 보인다. (25나)의 ‘밧지’는 ‘말이’의 ‘ㄷ’이 연철된 후 ‘ㅣ’와 결합하여 구개음화된 것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ㅅ’의 표기는 분철, 연철, 중철 표기가 모두 나타난다.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분철 표기(26가), 중철 표기(26라)를 보인다. (26나)처럼 분철하다 연철로 수정되거나, (26다)와 같이 중철의 표기가 분철로 수정되기도 한다. 용언의 활용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항상 중철 표기된

다(26마). (27)은 ‘것’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했을 때의 표기로 분철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초학언문』(1895)에서는 중철 표기와 연철 표기가 혼용되었으나 『초학언문』(1896-7)부터는 모두 연철 표기하였다.

- (28) 가. 밤낫<10b,19,19>, 좃느냐<14a>
나. 츠젓다<13b,28,28>
- (29) 가. 빗난<14a>, 빗나며<28,28>
나. 멧치<3,3>, 빗치<7a,12,12>, 좃차<10b,19,19>
다. 돛슬<8a>→돛을<14,14>

‘ㅈ’와 ‘ㅊ’은 자음이 이어질 때에는 ‘ㅅ’으로 표기한다(28가, 29가). 모음 어미가 이어질 때 ‘ㅈ’은 다음 음절로 연철되고(28나) ‘ㅊ’은 ‘ㅅ+ㅊ’으로 중철 표기된다(29나). (29다)처럼 ㅊ 종성이 ‘ㅅ+ㅅ’으로 중철되다가 ㅅ으로 분철되는 예도 있다.⁹⁾

- (30) 가. 갖고<7a,12,12>
나. ㄱㅎ되<13b,28,28>, ㄱㅎ돛<8a,14,14>, 맞히<17,17>/<9b>
 꺃해<8b,15>, 맞해<8b,15,15>, 히벃히/히빃해<25/25>
다. ㄱ치<6b,11,11>, ㅃ쳐<12b26,26>
- (31) 가. 도와<13b,27,27>
나. 도화ㅎ느<7,7>, 도흔<10a,18,18>, 도흘너라<10b,19,19>
다. 돛스오나<29,29>
라. ㄱ러케<8a,14,14>, ㄱ러케<7b,13,13>, ㅃ코<25,25>

‘ㅌ’ 종성에 자음이 이어질 때는 중화된 음인 ‘ㅅ’으로 표기한다(30가). 반 모음 ‘y’나 ‘i’ 앞에서는 중철 방식을 취하여 ‘ㅅ’으로 표기한 후 이어지는

9) 『국민소학독본』이나 『소학독본』 등에서도 ‘엇기, 맞아들, 낫에, 꺃치, 빗시, 도슬 등...’ 종성의 ㅌ, ㅈ, ㅊ, ㅊ을 ㅅ으로 표기한 예가 확인된다. 중화된 음을 ‘ㄷ’이 아니라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다른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기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음절에 구개음화가 반영된 음을 표기한다(30다). (30나)와 같이 그 외 모음 앞에서는 ‘ㅅ+ㅎ’으로 재음소화된 표기를 보인다. 종성에 ‘ㅎ’이 오는 경우 모음이 이어지면 ㅎ이 탈락하거나(31가) 연철된다(31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ㅅ’ 앞에서는 ‘ㅅ’으로 표기하고 파열음이 이어지면 축약되어 유기음화된 표기를 보인다.

(32) 맞나니<16b>, 맞나보지<31,31>, 맞난즉<8a,14,14>

‘만나다’는 중세국어에서 ‘ㅅ’ 종성을 지닌 어휘다¹⁰⁾. 16세기에 종성의 ‘ㅅ’과 ‘ㄷ’이 중화되면서 후행하는 ‘ㄴ’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일어나 ‘만나’가 되었는데, 『초학언문』에서는 ‘맞나’라는 표기가 나타난다.

『초학언문』에 쓰인 겹받침은 ‘ㄱ, ㄴㅎ, ㄹ, ㄹ, ㄹ, ㄹㅎ, ㅅ, ㅅ’이다. 일부 겹받침은 분철 표기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철 표기를 보인다.

(33) 가. ㄱ 삭군<13a,26,26>

나. ㄴ 안즌<16a>

다. ㄴㅎ 만흐니<10a,18,18>, 만흐신<31,31>, 만히<4b,8,8>

안코<12a,22,22>, 안느지라<16a>

라. ㄹ 넓고<4a,7,7>, 넓느<4b,7,7>, 넓어야<4b,8,8>, 닉히고<4b>→
넓히고<8,8>, 붉기에<14a>, 붉어져<32,32>, 붉히<3,3>, 붉히
고<32,32>, 붉어<7a,12,12>, 붉은<24,24> 흙을<25,25>

마. ㄹ 기울미라<16a>, 움기지<7b,13,13>

바. ㄹ 여뵈<7b,13,13> cf. 슬피<27>→슌히<27>

사. ㄹㅎ 날혔다<13b,28>, 날혔던<13b,27>, 쓸어<8b,15,15>, 울소이다
<23,23>

아. ㅅ 업느니라<5a,8,8>, 업느<3b,6,6>, 업느지라<8b,15,15>, 업다
<11a,20,20>, 업더니<8a,14,14>, 업소<3b,6,6>, 업서
<12b,26,26>, 업스니<10a,18>, 업시ㅎ고<12b,26,26>

자. ㅅ 닷느(修)<5a,9,9>

10) 先生을 길헤 맞나 썰리 나사가 정다이 서서 『번역소학 326』

‘샷꾼’의 ‘샷’은 (33가)와 같이 ‘ㅅ’으로 표기된다. ㅅ, ㅅᄇ, ㅅᄃ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면 연철된다. (33다), (33사)와 같이 ᄃ이 뒤에 오는 경우는 연철되거나 ᄃ이 탈락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해당 자음이 파열음이나 파찰음이면 축약되어 유기음화된 표기를 보이고 마찰음이나 공명음 앞에서는 ᄃ이 탈락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연철 표기한다. 다만, (33사)의 ‘쓸어’와 같이 모음 앞에서 ᄃ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33라)의 리과 (33바)의 리은 그 형태를 유지한다. (33바)의 ‘슌히’는 ‘슬프.’의 표을 ㅅ+ᄃ으로 과잉분석한 표기다. 『초학언문』(1896-7)에서 ‘슬피’로 표기되었던 것이 『초학언문』(1909)에서 ‘슌히’로 쓰였다. (33마)의 리이나 (33아)의 ㅅ은 이어지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를 거치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연철된다. (33자)의 시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 표기된다.

5. 어중 -ㄹㄴ-의 표기

근대 계몽기에는 어휘 내의 -ㄹㄴ-,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ㄹㄴ-, ㄹ 불규칙 활용에서의 -ㄹㄴ- 등이 -ㄹㄴ-으로 표기된다. 어중의 -ㄹㄴ-표기는 19세기 표기의 보편적인 것으로 성경이나 교과서 등에서 쓰인다(정길남 1997:12). 『초학언문』에서도 -ㄹㄴ-의 연쇄를 -ㄹㄴ-으로 표기한다.

- (34) 가. 걸닙<9b,18,18>, 놀나개<31,31>, 들니지<9a,16>, 말녀<25,25>,
 딸니<6b,11,11>,<절노<8b,15,15>, 올라가샤<28,28>, 흘노<15a>, 풀
 날<11a,20,20>
 나. 만물노<19,19>, 물노<25,25>, 아들노<13a,27,27>, 하늘노<18a>,
 일노<7b,13,13>
 다. 불너<13a,27,27>, 도흘너라<10b,19,19>,
 빌니오<18> cf. 빌이오<10a>
 라. 엘니아(엘리아)<28>, 예루살뎌(예루살렘)<30>
 마. 석탄불을<8b>→석탄불로<15>→석탄불노<15>

(34가)는 어휘 내에서 -ㄹㄹ-이 -ㄹㄴ-으로 나타난 예다. (34나)는 명사와 조사 결합에서, (34다)는 용언의 활용에서 -ㄹㄹ-이 -ㄹㄴ-으로 표기되는 예다. (34다)의 ‘빌리오’는 『초학언문』(1896-7), 『초학언문』(1909)에서는 ‘빌+리+오’가 ‘빌리오’의 형태로 쓰였으나 『초학언문』(1895)에서는 -ㄹㄹ-이 -ㄹㅇ-으로 나타난다. (34라)처럼 용언 어간이나 부사 외에 ‘엘리야’, ‘예루살렘’과 같은 외국어 표기에도 -ㄹㄹ- 대신 -ㄹㄴ-이 쓰였다. (34마)는 『초학언문』(1895)에서 조사 ‘을’이 『초학언문』(1896-7)에서는 조사 ‘로’로 바뀌었다가 『초학언문』(1909)에서는 조사 ‘로’의 표기가 ‘노’로 바뀐 경우다. 『초학언문』에서 -ㄹㄹ-의 표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석탄불로’의 예 하나인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주된 표기 방식이 -ㄹㄴ-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ㅎ 종성 체언의 표기

음소 /ㅎ/은 중세국어에서부터 빈번한 탈락이 관찰된다. 현대국어에서 /ㅎ/은 형태소 내부에서는 이미 소실되었으며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체언 말음 /ㅎ/은 중세국어에만 존재하였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초학언문』에서 체언의 종성 ‘ㅎ’이 표기되는 경우는 일부 단어에서 ‘ㅎ’ 종성 표기가 남아있다.

- (35) 가. 셔호로<6b,11>→셔으로<11>, ㅎ나홀<7b,13>→ㅎ나를<13>, ㅎ나히나<13>→ㅎ나이나<13>
 나. 짜히<6b,11,11>, 짜해<12,12>
 짜흔<7a,13>→짜은<13>, 짜홀<7b,13>→짜을<13>, 짜희<7a,13>
 →짜의<13>, 쌍도<6b,12>→따도<12>, 쌍을<6b,12>→따을<12>, 짜도<7b,13,13>, 짜에서<8a,14,14>
 다. 우으로부터<17b>→우희<5,5>
 라. 바회<10a,18,18>, ㅎ나흔<29,29>, ㅎ나만<3b,6,6>

(35)를 통해 ‘셔’, ‘짜’, ‘우희’, ‘바회’ 등의 체언에 ㅎ 종성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땅’ 표기의 경우 싸하<6b>, 쌍을<6b>, 싸에서<8b>와 같이 같은 문헌 내에서 ㅎ이 탈락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공존한다. 『초학언문』(1895)과 『초학언문』(1896-7)에서 ‘쌍도<6b,12>’처럼 ㅎ>ㅇ 변화를 반영한 표기가 『초학언문』(1909)에서는 다시 ‘싸도<12>’로 수정되기도 한다. ㅎ중성 체언은 (35가)처럼 ㅎ이 탈락한 형태로 수정되기도 하지만 (35다)의 ‘위’와 같이 나중의 문헌에서 ㅎ이 더해진 표기로 바뀌기도 한다. 이를 통해 ㅎ중성 체언의 음운 변화가 당시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 기타 표기

현대국어에서는 치찰음 ‘ㅅ’, ‘ㅆ’, ‘ㅈ’ 뒤에 이중모음이 결합하지 않으나 『초학언문』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여전히 나타난다.

- (36) 가. 부자집에<12b,26,26>, 빅성<7a,12,12>, 선싱<4a,7,7>, 성부
 <11b,21,21>, 터쥬<9b,18,18> ...
 나. 가셔<5b,9,9>, 산에서<25>, 아옵쇼셔<13a,27,27> ...
 다. 날슈<23>→날수<23>, 넷적에<12b,25>→넷적에<25>, 모세<32>
 →모세<32>, 적어<6b>→적어(小)<12,12>, 적은<7b>→적은
 (小)<13,13>

『초학언문』 치찰음 아래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변별되어 사용되었으나 (36다)와 같이 『초학언문』(1909)에서 반모음 ‘y’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어의 표기에서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보아 점차 치찰음 아래에 이중모음이 결합하지 않는 표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초학언문』의 음운 현상

4장에서는 『초학언문』에 나타난 표기 중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고모음화, 전설모음화 등의 음운 현상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구개음화

경구개 외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구개음화는 16세기 중엽에 나타나 17, 18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근대 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ㄷ 구개음화 현상이 혼란스럽게 나타나 같은 문헌 내에서도 구개음화가 적용된 표기와 그렇지 않은 표기가 혼용된다(정길남1997:19). 『초학언문』에서는 단어에 따라 ㄷ 구개음화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표기는 비교적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 (37) 가. 던기(電氣)<8b,15,15>, 던기선(電氣船)<8b,15,15>, 던보(電報)<16,16>, 데일(第一)<4a,7,7>, 데즈(弟子)<14b,29,29>, 대황제(大皇帝)<5,5>, 승텨(升天)<11b,21,21>, 텨디(天地)<10b,19,19>, 텨륜(天倫)<5b,10.,10>, 텨문지구(天門地球)<11,11>, 텨스(天使)<15b,31,31>, 텨하(天下)<11b,21,21>, 텨(體)<1,1>, 시텨(屍體)<31,31>, 룡디(陸地)<6b,12,12>, 처디(處地)<12b,26,26>
 나. 더들이<15b,31,31>, 더기<6,6>, 데<19b,26>, 도와<13b,27,27>
 다. 전ㅎ느니(傳)<8b,15,15>, 정ㅎ계(淨)<5a,8,8>
 라. 전기<8b>→던기(電氣)<15,15>, 정ㅎ고<16>→명ㅎ고(定)<16>
 cf. 명ㅎ여(定)<15b>
 텨지<11a>→텨디<20,20>(天地), 도션<9a>, 죠션<7a><12a>→죤션(朝鮮)<16,16>

(37가)는 한자어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 (37나)는 고유어에서의 예다. 『초학언문』에서는 ㄷ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가 주로 나타나

는데 (37라)와 같이 표기에 혼란을 보이는 예도 있다. ‘電’과 ‘地’는 각각 ‘뎨’와 ‘디’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초학언문』(1895)에서 ‘전’과 ‘지’로 표기되는 경우가 한 번 확인된다. ‘定하다’의 표기는 『초학언문』(1896-7)에서만 ‘뎡하다’로 쓰인다. 『초학언문』(1895)의 표지에서는 ‘朝鮮’을 ‘조선’으로 표기했으나 본문에서는 ‘도선<9a>’과 ‘조선<7a>’의 혼기를 보인다.

한편,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의 연결 환경에서는 ㄷ구개음화가 항상 실현된다. ㅁ자<6a,11>나 ㅃ처<12b,26,26> 등과 같이 ‘ㄷ’ 또는 ‘ㅌ’이 ‘ㅣ’나 ‘y’와 이어질 때에는 구개음화가 표기에 반영된다.

ㄱ 구개음화나 ㅎ 구개음화는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초학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2.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는 양순음 뒤에서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ㅑ’로 바뀌는 현상이다. 원순모음화는 18세기 말에 거의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나 『초학언문』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예를 확인된다.

- (38) 가. 무엇<10a,18,18>, 물<3a,6,6>, 우물<10a,18,18>
부즈런히<4a,7,7>, 불<5,25>, 비부르게<13a,26,26> 썩리고<9>
푸른/푸른<7b/13,13> ...
나. 더브라<16a><23,23>, 므룻<16a>, -브타<14a><5,5>

(38가)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경우이고 (38나)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예다. 같은 시기에 나온 『국민소학독본』에서 ‘물’을 제외한 단어에서 대체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정길남1997:32)과 대조적으로 『초학언문』에서는 ‘더불어’나 ‘무룻’과 같은 부사나 조사 ‘부타’를 제외하고는 명사나 용언에서는 원순모음화된 표기를 취한다.

3. 고모음화

고모음화는 중모음이 고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이다. 이는 개구도의 축소를 통해 조음상의 편의가 어두에서 중모음 ‘ㄱ’, ‘ㄴ’이 각각 고모음 ‘ㅣ’, ‘ㅡ’로 교체되거나 어두, 비어두에 상관 없이 중모음 ‘ㄱ’이 고모음 ‘ㅓ’로 교체된다.

- (39) 가. 가리오며<29,29>, 갓초아<4,4>, 갓촌<14a>, 논호고<7a,12,12>, 맞초나<13a,26,26>, 비호기가<4a,7,7>, 사괴논<6a,11,11>, 어려오나<12a,21,21>, 외울<1,1>, 해로운<6a,11,11>
 나. 가온딕<7b,13,13>, 나중<12a,22,22>, 동모<24,24>, 아오<6a,10,10>, 얼골<28,28>, 즈조<5a>, 자조<9,9>, 직조<5,5>, 흐로<22,22>
 다. 갓가우니<8a>→갓가오니<14,14> cf. 갓가오매<16a>×32,32>, 어려우니<12a>→어려오니<21,21>
 라. 더욱<13b>→더욱<28,28>, 쉬운<4a>→쉬운<7,7>

(39가)와 (39나)는 ‘ㄱ’이 ‘ㅓ’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의 용례다. (39다)는 『초학언문』(1895)에서 고모음화가 적용된 표기가 『초학언문』(1896-7)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표기로 수정을 보이는 예고 (39라)는 반대 경우의 예다. 발행본마다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초학언문』에서는 ‘즐거우니<10b,19,19>, ‘뉘우<4b,8,8>’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고모음화가 실현되기 전의 표기가 나타난다.

4. 전설모음화

‘ㅅ’, ‘ㅆ’, ‘ㅈ’에 후행하는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을 전설모음화라고 한다. 국어의 전설모음화는 『十九史略彙解』(1832)에서 처음 발견된 후 생산적으로 나타나지만 『초학언문』에는 전설모음화가 반영되지 않은 예가 있다.

(40) 가. 일즉<5a,9,9>

나. 오직<14b><29,29>

다. 뵈셨시니<12a>→뵈셨스니<22,22>, 잇시니<6b,12>→잇스
니<12>, 흥였시니<11a>→흥였스니<20>, 흥여시니<5a>→흥
였
시니<9>→흥였스니<9>

‘일찍’은 『초학언문』뿐 아니라 『국민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소학독본』 등에서도 ‘일즉’으로 표기된다. 『국민소학독본』은 ‘오즉’과 ‘오직’의 혼기를 보이는 반면 『초학언문』에서는 ‘오직’으로만 쓴다(정길남 1997:34). (40)는 ‘-으니’에 전설모음화가 적용되어 ‘-이니’로 표기되다가 ‘-으니’로 수정된 예다.

5. ㄹ탈락

어간말 ‘ㄹ’ 탈락은 중세국어에서 종성이 ‘ㄹ’인 어간이 ‘ㄴ, ㄷ, ㅅ, ㅈ, ㅊ’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오는 경우에 적용되다가 점차 적용 범위가 축소 변화되었다. 현대국어에서 ‘ㄹ’ 탈락은 용언의 어간말 ‘ㄹ’이 ‘ㄴ,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오는 경우와 종결어미 ‘-으오’, 선어말어미 ‘-오/옵’의 앞을 때만 적용된다. 『초학언문』에서 ‘알다’는 ‘아지’와 ‘알지’로 표기된다.

(41) 가. 아지<15a><30,30>

나. 알지<13a,27,27><30,30>, 알지니라<3,3>

V. 결론

지금까지 『초학언문』의 표기법과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초학언문』은 순한글로 쓰인 한글 학습서로 1895년본, 연대미상의 8판, 1909년본이 전해진

다. 1895년본은 20공과로 이루어져 있다. 연대미상의 8판과 1909년본은 1895년본의 칠, 팔 공과를 한 과로 합치고 십구, 이십 공과의 내용을 축소하여 한 과로 실었다. 그리고 한글 학습자료 두 과와 읽기 자료 네 편을 추가해 총 이십오 공과로 구성하였다. 연대미상의 8판과 1909년본에 추가된 읽기 자료 중 성경 자료를 제외한 세 편은 모두 『신정심상소학』(1896)의 읽기 자료를 순한글로 옮긴 것이다. 연대미상의 8판과 1909년본은 몇몇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에 학습서의 구성이나 내용은 동일하다. 연대미상의 8판은 학습서에 실린 행정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1896-1897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학언문』은 표기의 혼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일관성있는 표기를 보인다. 또한 초간본에 비해 『초학언문』(1909)에서는 ‘갓+조사’의 표기가 모두 연철 방식으로 바뀐다거나 ‘ㅅ’의 ㅎ중성이 모두 탈락하는 등 보다 더 일관성있게 수정된다. 이는 학습서라는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초학언문』의 표기 특징과 음운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학언문』에서는 대체로 어두의 ‘ㄴ, ㄹ’을 밝혀 적는 표기 방식이 이어졌다. 어두 경음은 ㄱ계 합용 병서로 표기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1896)에서 ㄱ계 합용 병서와 ㄴ계 합용 병서가 동시에 쓰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중성에는 분철, 연철, 중철의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표기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7개만 사용되었다. 겹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ㅈ, ㅊ, ㅅ’ 등이 나타나는데 ‘ㄹ, ㅁ’은 형태를 밝혀 표기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자음군단순화나 이어지는 음절에 연철, 축약된다. 중성에 ‘ㄱ, ㄴ, ㅁ, ㅂ’이 쓰였을 때 주로 분철 표기되었고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말 ‘ㄹ’은 연철과 분철 방식의 혼용을 보인다. 어간말 자음 ‘ㄷ’의 경우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국어 교과서에서 ‘ㄷ’으로 연철되는 것과 달리 ‘ㅅ’으로 분철 표기한다. ‘ㅅ’은 연철, 중철, 분철의 표기가 모두 혼용된다. ‘갓’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한 경우 분철의 표기를 보이는 예는 없고 『초학언문』(1895)에서만 연철과 중철의 표기가 혼용된다. 이후에는

모두 연철 표기로만 나타난다. ‘ㅈ, ㅊ, ㅌ’ 종성에 자음이 이어질 때에는 ‘ㅅ’으로 표기되나 모음이 이어질 때에는 연철과 중철의 표기를 보인다. ‘ㅎ’이 종성에 쓰였을 때에는 ㅎ이 탈락하거나 연철되거나 ㅅ으로 중철되는 표기가 모두 나타난다. 파열음이 이어질 때에는 축약에 의한 유기음화가 표기에 반영된다. 이는 꺾받침 ‘ㄴㅎ, ㄹㅎ’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어중 ‘-ㄹ-’의 연쇄에서 유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ㅎ종성 체언의 표기는 ‘서, 싸, 우희, 바희’에서 유지된다. ‘싸’는 ‘쌍’과 ‘ㅈㅎ’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표기를 보였으나 『초학언문』(1909)에서 ㅎ이 탈락한 표기만 나타난다.

모음의 표기는 ‘·’의 변화가 가장 특징적이다. ‘·’가 ‘ㅏ’ 또는 ‘ㅑ’로 변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의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ㅏ’, ‘ㅑ’, ‘ㅓ’가 다시 ‘·’로 표기되기도 한다. 치찰음 아래에서 이중 모음의 표기가 나타나는데 한 문헌에서 혼기를 보이는 예는 없으나 ‘날수’, ‘옛적’, ‘모세’, ‘적’에서 판본에 따라 다른 표기를 보인다.

음운 현상으로는 ㄷ구개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다만, 어근과 접사, 어간과 어미의 연접환경에서는 구개음화가 표기에 반영된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국어 교과서에서는 원순모음화를 외면한 표기가 주를 이루는 것과 다르게 원순모음화가 실현된 어휘가 다수 등장하지만 ‘더브러’, ‘므룻’, ‘브터’ 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고모음화와 전설모음화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고 ㄹ탈락의 경우 같은 환경에서 ㄹ탈락형과 유지형이 공존한다.

[주제어] 초학언문, 한글학습서, 근대계몽기, 음운 현상, 표기법

[참고문헌]

- 김근영, 「개화기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형철, 『개화기국어연구』, 창원: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 박연호·김근영,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1884~1905」, 『교육사학연구』 25(2), 2015, p. 93-124.
- 서신혜, 「『초학언문』과 『국어독본』」, 『문헌과 해석』 60, 2012, p. 89-102.
- 송미영, 「초간본 《초학언문》의 표기와 음운 현상 고찰」, 『국어학』 84, 2017, p. 239-273.
- 윤춘병, 『韓國監理敎圖書出版百年史』, 서울: 감리교본부교육국, 1986.
- 이기문, 『신정판 국어사개설』, 파주: 태학사, 1998.
- 이근영, 「19세기 국어의 변동규칙」, 『한글』 246, 1999, p. 65-98.
- 이종만, 「해방 직후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부 재건」, 『인문과학』 92, 2010, p. 211-240.
- 정길남,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서울: 박이정, 1997.
- 정수희, 「개화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체계 -신소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정운형, 「Arthur L. 베커 선교사와 근대 과학 교육」, 『인문과학』, 111, 2017, p. 87-113.
- 조선총독부, 『敎科用圖書一覽』, 서울: 조선총독부, 1913.
- 한미경,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 - 북미 기록관 소장 현황 -」, 『인문과학』 111, 2017, p. 33-61.
- 홍윤표, 「근대 국어의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19, 1986, p. 113-140.
- 홍종선 외,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1 - 음운 형태』, 서울: 박이정, 2000.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근대 계몽기에 한글 학습서로 사용된 『초학언문』을 대상으로 하여 판본에 따른 내용, 표기 및 음운 현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초학언문』은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마가렛 벵겔(Margaret J. Bengel)이 저술한 초학지용 한글 학습서다. 1895년 초간본 발간 이후 여러 차례 수정 간행되었으며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초간본 외에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의 연대미상 8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의 1909년판이 있다.

연대미상본과 1909년본은 초판(1895)의 내용에 한글 학습 자료 두 공과와 읽기 자료 네 편이 더해졌다. 추가된 읽기 자료는 성경 이야기 한 편과 설명문 세 편인데 설명문은 모두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는 『신정심상소학』(1896)에 실린 이야기를 순한글로 바꾼 것이다. 연대미상본과 1909년본 사이에는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행정 구역을 설명하는 글에서 평안북도 감영의 위치와 항구를 관장하는 관원명의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보아 연대미상본은 1896년과 1897년 사이 어느 시기엔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학언문』의 표기상의 특징으로 ‘·’의 표기, 어두 ‘ㄴ’과 ‘ㄷ’ 표기, 경음의 표기, 어중 ‘-ㄴ-’의 표기, 종성의 표기, ㅎ중성 체언의 표기, 치찰음 아래에서 이중 모음의 표기를 살펴보았다. 같은 시기에 발행된 국한혼용문 국어 교과서에서 ㅅ계 합용 병서와 ㅈ계 합용 병서를 사용한 것과 달리 『초학언문』에서는 ㅅ계 합용 병서만 쓰였다. 또한 ‘ㄷ, ㅅ, ㅈ, ㅊ, ㅌ, ㅍ, ㅎ’ 중성을 중화음 [ㄷ]이 아닌 ‘ㅅ’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적이다. 주로 분철 표기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중철과 재음 소화 표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표기의 변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 변화지만 변화 양상에서 어떠한 경향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학언문』(1895)보다 『초학언문』(1909)에서 더 일관성 있는 표기를 보인다.

음운 현상으로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고모음화, 전설모음화, ㄹ탈락을 살펴보았다. ㄷ구개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원순모음화는 실현형과 미실현형이 공존하며 고모음화와 전설모음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ㄹ탈락은 ㄹ이 유지된 형태와 탈락된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Abstract]

Orthography and phonological phenomena of Hangul text-
books in Enlightenment Period

- Based on a different version of *Chohakeonmun* -

Kim, Unsol (Yonsei University),

Han, Young-gyu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contents, transcriptions, and phonological phenomena based on *Chohakeonmun*, a Hangul textbook for beginners written by Margaret J. Bengel, an American Methodist missionary. This is written in Hangul and was used as a textbook at Pai Chai College. The surviving publications are the first edition (1895), eighth edition (publication dates unknown), and a version published in 1909 (edition unknown).

The eighth edition and the one published in 1909 contain two more chapters for studying Hangul and four more reading materials than the first edition (1895). The additional reading materials are one episode from the Bible and three pieces of expository prose, all of the latter being drawn from the *Shinjungsimgangsok* (1896) and translated into Hangul.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contents of the eighth edition and the one published in 1909 except for the location of Gamyong (the sea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in North Pyongan Province and some names of positions in a text explaini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refore, the publication date of the eighth edition is estimated between 1896 and 1897.

Transcriptions of “·,” an anlaut “ㄴ” and “ㄱ,” a hard consonant, a word-medial “-ㄴ-” and a final consonant, and a diphthong after sibilants are transcription features of *Chohakeonmun*. *Chohakeonmun* used only “ㄴ” consonant clusters, while other Korean textbooks written in mixed scripts and published during the same period used “ㄴ” consonant clusters and “ㄱ” consonant clusters. Also, there is the feature of

writing final “ㄷ, ㅌ, ㅍ, ㅊ, ㅌ, ㅍ, and ㅎ” as “ㅌ” instead of [t]. Separate spellings were mainly used, but there were some cases of double spelling and double phoneme writing being used. The largest change in transcriptions is the change in “·.” However, it is hard to determine tendencies from this change. Finally, the 1909 edition shows more consistent transcriptions than the first edition.

We examined palatalization, vowel rounding, vowel raising, vowel fronting, and “ㄷ” dropping as phonological phenomena. One feature is that “ㄷ” palatalization rarely occurred. Vowel rounding consists of both applied and unapplied forms, and vowel fronting rarely occurred. “ㄷ” dropping appears with forms in which “ㄷ” is both maintained and eliminated.

【Keywords】 Chohakeonmun, Hangeul textbook, Enlightenment Period, Phonological phenomena, Orthography

논문투고일: 2020.11.15 / 논문심사일: 2020.12.5 / 게재확정일: 2020.12.22.

【저자연락처】 unsol.k@yonsei.ac.kr / yghan@yonsei.ac.kr